

Kukje Gallery

Hong Seung Hye_회상회想

홍승혜 (서울 생, 1959-)

2014. 7. 10 - 8. 17

국제갤러리 2관 (K2)

기자간담회: 2014. 7.10 (오전 11시), 국제갤러리2관, 작가참석예정

www.kukjegallery.com



"돌이켜 보면, 나는 늘 돌이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과거는 주어졌고 미래는 한없이 불확실하다. 결국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 홍승혜

국제갤러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증견 작가 홍승혜의 개인전 <회상회想>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8 년 국제갤러리 1 관에서 선보인 개인전 <파편(Debris)> 이후 6 번째 개인전으로서 회고적인 성격을 지닌다. <회상회想> 이라는 전시제목은 1997 년부터 시작된 작가의 '유기적 기하학(Organic Geometry)'으로 출발한 일련의 대표적인 작업들과 당시 작가가 다루었던 주요한 접근방식을 흑백의 조각 및 평면, 영상 설치에 이르는 매체적인 특성에 따라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마치 오래된 흑백영화처럼 무채색의 '회상'의 공간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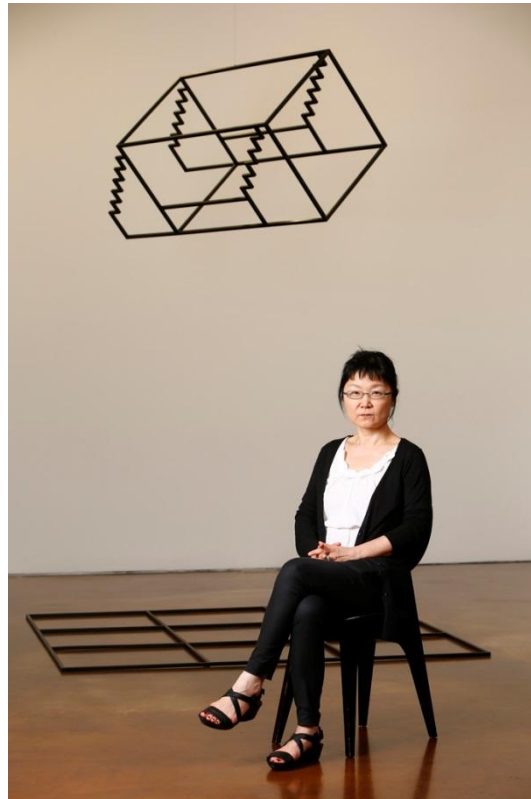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작가는 프로그램의 기본단위인 픽셀의 결합과 축적을 통해 이미지를 구현한다. 작가는 이 사각의 그리드를 고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열, 조합, 반복, 분해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증식시키며, 유기적이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한다. 또한 논리적인 그리드의 조형적 안정감 속에 분절을 가미함으로써 불안한 질서와 불협화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홍승혜의 이미지는 모니터에서 탄생하여 실제 공간으로 나와 다양한 일상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등 조형적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번 전시는 그간 수행해 왔던 다양한 시도들, 즉 시공간의 레이어를 넘고[Over the Layers], 분절과 결합을 거듭하고[Debris], 그리드의 안과 밖을 넘나들고[On & Off], 음악적 질서를 수용하며[Musical Offering], 끊임없는 프레임을 갱신해왔던[All about Frames] 과거의 작업들을 형태와 소재의 변형을 거쳐 보여준다.

1층 전시장에는 작가의 과거 대표작들이 크기와 재료를 달리해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로 변주되고 있다. 1997년 초기 컴퓨터 드로잉에 기초한 실크스크린 작업들은 잉크젯 프린트로, 2000년 서랍모양의 알루미늄 패널 작업은 실제 가구로 재현되고, 2004년 벽화 <회상>은 다시 알루미늄 패널

로 구현되어 평면과 입체 사이를 유희한다. 2008년 <파편>의 벽면 부조들은 바닥으로 내려와 건축적 면모를 띠게 되며 텍스트 조각 <MORE INTERESTING THAN ART>는 다시 파편화 되어 <MORE>로 귀결된다. 같은 해 <On & Off> 나무 조각 작품들은 무채색의 철재로 재현되어 공간 속에서 격자구조를 넘나들고 2010년 일시적 설치 작업이었던 <About Frame>이 다시 제작되어 바닥에 놓인다. 1990년대 후반 사용했던 일련의 원형 프레임들은 전시장 벽에 실재로 타공되어 전시장의 안과 밖을 연결할 뿐 아니라, 2000년에 제작된 타일로 재조성한 <Daybed>가 놓여있는 정원 풍경을 잘라낸다. 이처럼 전시장 곳곳에서 기존 작품의 이미지와 조형 방식을 참조한 <유기적 기하학>이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2층 전시장에는 지난 10여년간 제작된 6편의 플래시 애니메이션 <더 센티멘탈 The Sentimental> 시리즈를 흑백으로 전환해 한데 묶은 대규모 영상설치 작업 <6성 리체르카레 Ricerare a 6>를 선보인다. 바흐의 모음곡 <음악의 헌정>이 원전인 이 곡은 독립성이 강한 두 개 이상의 멜로디를 결합, 대결시키는 대위법을 기초로 한 푸가로서, 이 작곡법은 작품에 재적용 되고 있다. 각각 다른 시기의 센티멘탈리티를 한자리에 모은 이 뮤직 비디오들은 서로 충돌하며 언뜻 불협화음을 만들지만 잠시 후 그 불협화음 속에 각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번 국제갤러리 개인전 <회상回想>에 선보이는 '유기적 기하학'의 여러 변주들은 각자가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그리드가 되어 하나의 전시 안에서 위계 없이 재생, 복제, 증식되고 있다. 이는 각 작품이 구성요소가 되어 전시 자체가 거대하고 역동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며, 작가가 진행해 왔던 유기적 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 홍승혜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사진: 김상태

홍승혜는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로 건너가, 1986년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2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국내외 기획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7년 국제갤러리 개인전 <유기적 기하학>을 시작으로 컴퓨터 픽셀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 실재 공간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1997년 토탈 미술상, 2007년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가노트: <회상回想>은 '유기적 기하학'의 과거 행적을 다루고 있다. 1997년 시작된 '유기적 기하학' 프로젝트는 주기적으로 '회상'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데, 초기 컴퓨터 드로잉을 기반으로 2004년에 제작한 흑백 벽화작업, 플래시 애니메이션 5편을 묶어 2010년 재편집한 흑백 동영상 작업 등이 그것이다. 과거의 작업들은 시공간의 레이어를 넘어[복선을 넘어서] 분절과 결합을 거듭하고[파편], 그리드의 안과 밖을 넘나들고[온 앤 오프] 음악적 질서를 수용하며[음악의 헌정] 끊임없이 프레임을 갱신해왔다.

이번 전시는 시기별로 대표적인 과거의 작업과 사용했던 변형의 방법론들을 근간으로 해, 오래된 흑백영화처럼, 무채색으로 그 회상의 공간을 도모한다. 그리고 그 과거가 잉태하고 생산해낼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사건들을 기대한다. 이 공간은 삶의 유기적 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이자 그 알레고리이며, 좌절을 거듭하고 있는 모더니스트 유토피아를 향한, 또 다른 작은 도전이기도 하다.

-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매체의 특성상 별도의 이미지 편집이 요구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ong Seung-Hye

Organic Geome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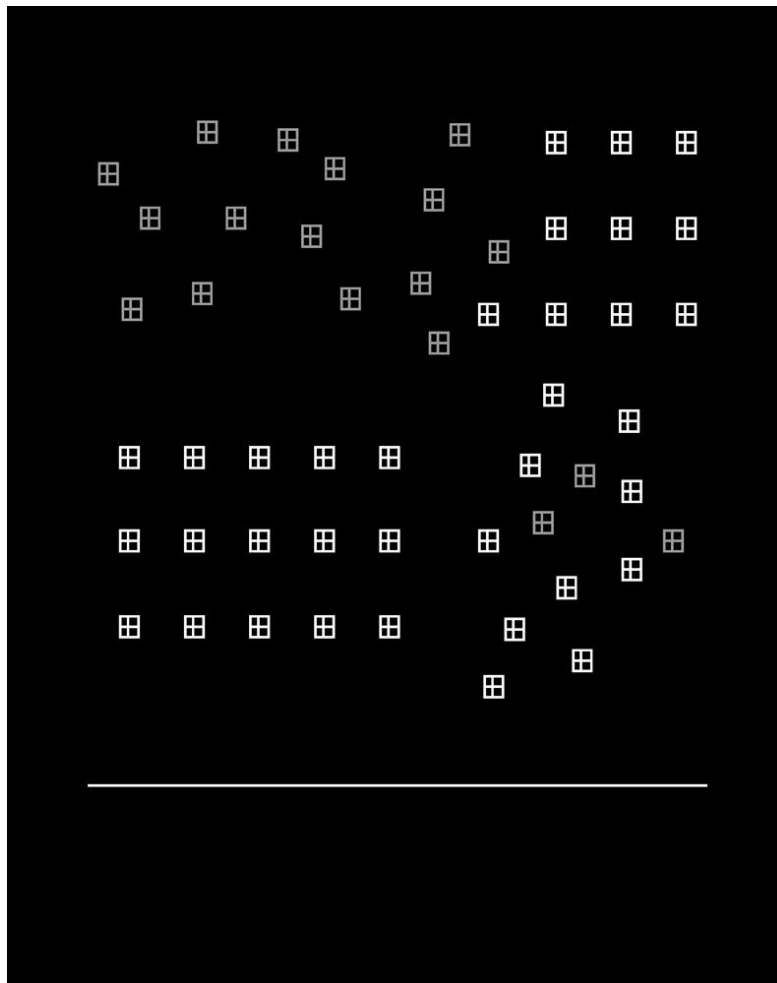
2014

Inkjet print

40x40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Hong Seung-Hye

Organic Geometry

2014

Inkjet print

40x40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